

중남미 및 아시아 커피산업 동향*

강 지 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1. 서론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최대의 커피생산지역이다. 남아메리카 커피재배는 1714년 자바에서 가져온 커피를 브라질 북쪽에 위치한 수리남(Surinam)에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대륙의 남쪽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커피가 생산된다. 브라질에서는 저지대의 구릉지역에서 대규모 경작에 의한 마일드 커피가 생산되며 콜롬비아는 밀도가 강하고 향이 풍부한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전 세계 커피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커피생산국으로 브라질 커피 작황은 전 세계의 커피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 아시아 최대의 커피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1696년부터 네덜란드 인에 의해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1877년 이후부터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종을 재배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커피 중 90%는 로부스타이며 10%만이 아라비카 커피이지만 이 10% 남짓한 아라비카 커피가 최고급 커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커피 시장에서 남미와 아시아가 가지는 중요성은 세계 커피 생산의 약 70%가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GAIN REPORT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jihyun007@gmail.com).

이 지역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주된 커피생산국이기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커피 생산, 소비, 교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 커피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남미 커피 산업 동향

2.1. 브라질

2.1.1. 생산

농산물교역담당관(Agricultural Trade Office, ATO)에 따르면 MY(marketing year:수확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작물이 판매되어지는 12개월) 2012/13의 브라질 커피 생산은 5,590만 자루(60kg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아라비카종은 4,020만 자루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전 해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2012/13년이 브라질 대부분의 지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아라비카종이 수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표 1 브라질 커피생산량

단위: 백 만 자루(60kg)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미나스 제라이스	26.90	22.10	28.50	23.50	28.30
-남서부	14.90	12.10	16.00	11.50	15.20
-중서부	5.10	4.20	5.50	4.50	5.90
-남동부	6.90	5.80	7.00	7.50	7.20
에스피리토 산토	12.10	10.60	11.50	13.50	15.00
-아라비카	2.90	2.40	3.10	2.70	2.80
-로부스타	9.20	8.20	8.40	10.80	12.20
상파울로	4.90	4.20	5.00	4.10	4.80
파라나	2.70	1.90	2.40	1.90	1.80
기타국	6.70	6.00	7.10	6.20	6.00
-아라비카	3.10	2.40	2.80	2.50	2.50
-로부스타	3.60	3.60	4.30	3.70	3.50
총 생산량	53.30	44.80	54.50	49.20	55.90
-아라비카	40.50	33.00	41.80	34.70	40.20
-로부스타	12.80	11.80	12.70	14.50	15.70

자료 : ATO / Sao paul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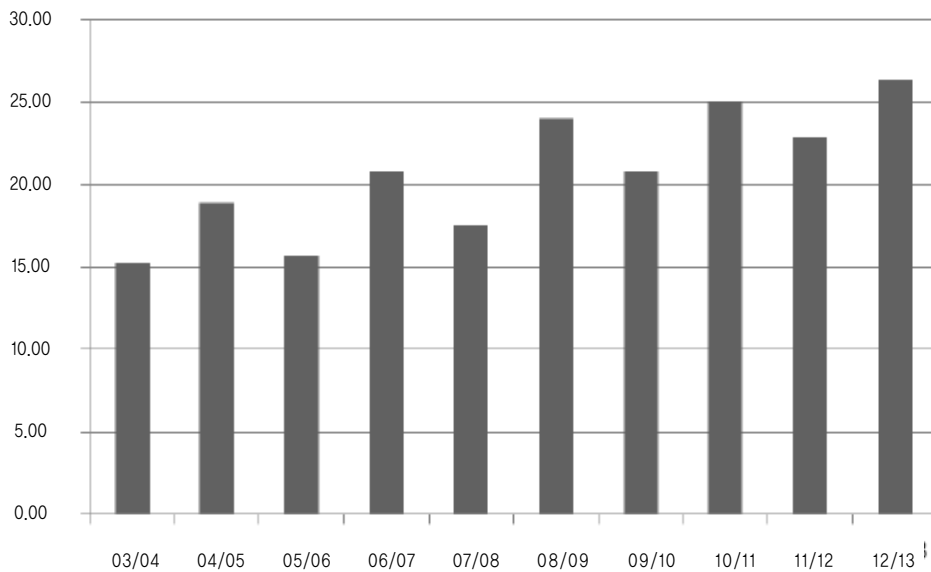
로부스타종의 생산량은 에스피리토 산토(Espirito Santo) 지역의 생산증가로 인해 이전 해에 비해 120만 자루 증가하여 1,570만 자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월 브라질 정부는 MAPA(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Supply)의 CONAB (National Supply Company)를 통해 브라질 커피 생산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발표했는데, MY 2012/13년 4,897만 자루에서 5,227만 자루를 생산할 것이라고 하였다. CONAB은 또한 아라비카종이 3,641만 자루에서 3,902만 자루를, 로부스타종은 1,256만 자루에서 1,325만 자루를 생산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브라질 지리 및 통계 연구소(The Brazili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 IBGE)는 또한 지난 2012년 3월 MY 2011/12년 커피 생산에 대한 예측을 하였는데, 2012년 커피 수확량은 300만 톤이며, 60kg 커피 자루의 환산했을 때는 약 5,010만 자루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13% 증가한 수치이다. MY 2012/13년 브라질 커피 수확량은 26.34 bags/hectare로 예상되며 지난 수확에 비해 14.7% 증가한 것이다. 이는 주로 아라비카종의 2년의 생산 주기와 맞물려 에스피리토 산토(Espirito Santo) 지역에서 로부스타종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1 브라질 커피의 단위 수확량

단위: 자루/ha



자료 : ATO / Sao paulo 2012.

2.1.2. 소비

MY 2012/13년 브라질 국내 커피 소비량은 이전해와 비교해 3.5% 증가한 2,076만 자루(원두커피 1,958만 자루, 인스턴트커피 118만 자루)로 예상되고,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커피산업협회(Brazilian Coffee Industry Association, ABIC)에 의해 발표된 가장 최근의 국내 소비량 조사에 의한 것이다.

MY 2011/12년 브라질 소비는 2,006만 자루로, MY 2009/10년의 1,942만 자루에 비해 3.3% 증가하였다. 원두커피가 1,892만 자루를 차지하였고 인스턴트커피는 114만 자루로 예상된다. 예측치들은 ABIC가 실시한 정기 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인구증가, 1인당 소비의 증가, 구매력, 국내 브랜드의 품질, 최상급 커피의 강한 성장세, 그리고 커피 소비량을 증진시키려는 국내 캠페인의 효과 등을 반영하였다.

표 2 브라질의 국내 커피 소비량

단위: 백만 자루(60kg), kg/year

연도	소비량(60kg 백만 자루)			1인당 소비량	
	원두커피	인스턴트커피	합계	원두커피	생두
2001	13.00	0.60	13.60	3.91	4.88
2002	13.30	0.74	14.04	3.86	4.83
2003	12.90	0.80	13.70	3.72	4.65
2004	14.10	0.80	14.90	4.01	5.01
2005	14.60	0.90	15.50	4.11	5.14
2006	15.40	0.93	16.33	4.27	5.34
2007	16.10	1.00	17.10	4.42	5.53
2008	16.68	0.98	17.66	4.51	5.64
2009	17.37	1.02	18.39	4.65	5.81
2010	18.06	1.07	19.13	4.81	6.02
2011	18.60	1.12	19.72	4.88	6.10

주 : 추정치들은 11월부터 10월까지를 나타냄.
자료 : 브라질 커피 산업 협회(ABIC).

ABIC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972만 자루의 커피가 가공되어, 이전해 동기간 대비 3%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2011년 1인당 소비량은 원두커피 4.88kg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12월 커피의 평균 유통가격은 kg당 13.26 레알¹⁾로 나타나 2010년 12월의 kg당 11.12 레알보다 19% 증가하였다.

1) 2012년 9월 현재 1레알은 한화로 557.32원임. 미국달러로는 0.49달러임.

ABIC는 2012년 총 국내 소비를 2,041만 자루로 보아 2011년보다 3.5% 증가할 것이며, 총 판매액은 77억 레알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1.3. 가격

상파울루 농업대(University of Sao Paulo's Luiz de Queiroz College of Agriculture, ESALQ)에 의해 발표된 커피 인덱스 가격은 1996년 9월부터 브라질 커피의 국내 현물가격을 조사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2011년에는 낮은 생산량으로 인해 브라질 화폐인 레알화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화 모두에서 커피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1.4. 교역 동향

MY 2012/13년의 브라질 커피 총 수출은 3,400만 자루로 이전해와 비교했을 때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 생두의 수출은 3,063만 자루, 인스턴트커피의 수출은 330만 자루로 예측하였고, 높은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아라비카 커피는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지속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브라질 레알화의 평가 절하 또한 상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 요인이다.

표 3 브라질의 국내 아라비카 커피가격

단위: 60kg/자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월	267.84	268.41	280.75	433.34	485.04
2월	285.19	269.34	278.68	495.98	441.31
3월	263.28	262.48	279.70	524.27	387.53
4월	256.35	260.10	282.18	524.41	379.53
5월	254.84	268.02	289.46	530.76	374.43
6월	255.76	256.64	305.98	514.99	
7월	250.51	247.50	302.36	457.81	
8월	248.86	255.34	313.93	470.62	
9월	261.58	254.29	328.23	511.57	
10월	256.84	262.20	327.15	490.45	
11월	261.28	272.55	355.51	493.83	
12월	262.04	281.57	387.01	491.35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MY 2011/12년의 커피 수출은 3,030만 자루로 생두(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 모두 포함)가 2,725만 자루, 인스턴트커피가 300만 자루를 차지하였다.

표 4 수입국별 브라질 커피 수출량

단위: 천 자루

구분	2010/11		2011/12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생두				
미국	307,147	1,053,497	286,163	1,338,368
독일	317,791	1,089,512	257,114	1,226,547
이탈리아	140,430	504,303	117,641	580,300
일본	99,380	354,883	102,400	527,241
벨기에	106,036	386,346	89,813	445,760
스페인	42,629	142,659	32,542	153,824
프랑스	32,131	104,247	25,754	111,645
스웨덴	28,725	93,886	25,930	124,099
네덜란드	21,757	74,162	16,505	74,917
슬로베니아	37,819	93,893	24,847	86,328
기타국	341,487	1,076,192	298,523	1,293,953
총 수출량	1,475,332	4,973,580	1,277,232	5,962,981
원두커피				
미국	1,206	7,568	1,078	10,435
독일	751	3,266	644	3,426
이탈리아	132	573	127	603
일본	164	891	126	834
벨기에	127	818	104	909
스페인	125	940	93	853
프랑스	69	309	90	526
스웨덴	59	234	46	250
네덜란드	29	194	36	347
슬로베니아	8	35	22	115
기타국	167	1,335	108	972
총 수출량	2,838	16,163	2,473	19,270
인스턴트커피				
미국	10,288	54,648	10,711	82,523
독일	6,836	55,142	5,990	56,978
이탈리아	3,737	29,335	4,339	40,873
일본	2,958	21,016	3,741	34,107
벨기에	4,019	20,775	3,647	23,594
스페인	2,299	17,252	2,685	23,071
프랑스	1,587	10,392	2,438	19,513
스웨덴	1,212	12,104	1,706	22,099
네덜란드	1,629	9,679	1,620	12,033
슬로베니아	1,548	10,774	1,584	13,898
기타국	22,051	176,288	20,989	202,406
총 수출량	58,166	417,405	59,449	531,094

주 : 각 연도별 전년 7월-차년 3월까지의 수출량을 나타냄.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다른 커피 생산국들의 낮은 생산량이 브라질 커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는데, 특히 수세식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브라질 커피는 세계 총 수출의 약 1/3을 차지한다. <표 4>는 생두, 인스턴트커피, 로스팅 된 커피의 수출을 수입국별로 나눈 것이다.

2.1.5. 정책

2012년 4월, 브라질재정심의회(National Monetary Council, CMN)는 2012/13년 커피 작물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Funcafé(Coffee Defense Fund)로부터 신용한도를 작물 관리(5억 레알), 저장시설(9억 레알), FAC(Coffee Acquisition Financing) 프로그램(2억 5천만 레알), 옵션 계약 및 선물 시장 거래(5천 만 레알), 인스턴트커피 및 로스터들을 위한 현금유동성 원활화(2억 2,500만 레알) 등을 승인하였다.

2.2. 콜롬비아

2.2.1. 생산

MY 2011/12년 콜롬비아 커피의 생산량은 850만 자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12년 말의 콜롬비아 커피 생산량은 지난 4년간 지속되어온 낮은 생산량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과거 40년간의 평균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국제 커피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미국 달러화로 환산된 2011년의 생산액은 그 이전해보다 16% 증가하였으며, MY 2012/13년 생산량은 900만 자루로 5.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은 한결 나아진 기상 상황과 개량된 커피나무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커피재배조합(Coffee Growers Federation)에 따르면, 2011년 11만 7,000헥타르가 개선되었고, 이러한 개선 프로그램에 지난 5년간 콜롬비아 커피 생산 지역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 계획은 이후에도 매년 11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서 계속 실행될 것이다. 현재 개량된 커피나무가 있는 지역과 앞으로 지속될 개선을 통해 콜롬비아 커피 생산량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커피나무 개선 프로그램은 적절한 기상 상황과 커피 농사법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커피 생산량에 대한 잠재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강우량과 높아진 기온 등의 기후변화는 콜롬비아 커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질병은 커피나무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커피 연구회(Center for Coffee Research)는 커피체리 천공충에 내성을 가진 커피 품종을 확인하여 현

재 연구 중에 있으며, 이러한 품종은 이미 생산 중인 커피 녹병에 내성을 가진 품종들을 보완할 것이다.

올해의 커피 생산은 커피나무 개량과 극심한 폭우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MY 2011/12년의 첫 5개월간 생산량은 390만 자루로 이전해 동기간 대비 27% 더 낮았다. 하지만 라니냐현상이 없어지고 커피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커피 생산량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증가할 것이다.

2.2.2. 가격

국제시장에서 콜롬비아 커피의 가격은 2012년 3월에 파운드 당 2.26 달러가 하락하여 전년 대비 16% 더 낮아졌다. 이러한 가격의 하락은 국내 가격에서도 나타나는데, 2012년 3월 국내 가격은 전년보다 26% 하락을 보였다. 페소화의 달러 대비 강세는 커피 재배자들의 수입을 더욱 감소시켰다. 현재 국제 가격의 상황과 페소화의 강세가 합쳐져 재배자들의 수입을 생산비에 가깝게까지 감소하게 하였다. 생산성이 낮은 커피 재배자들은 국내 가격의 하락에 따라 생산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2.2.3. 교역

MY 2011/12년 콜롬비아의 커피 수출은 이전 해와 비교해 11% 증가한 840만 자루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MY 2012/13년에는 정부의 자금조달에 따른 생산량 회복으로 수출이 이보다 더 증가하여 880만 자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에 대한 페소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커피 가격이 강세를 보여 콜롬비아 커피 수출은 유지될 것이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의 콜롬비아 커피 수출은 이전 해에 비해 6.3%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콜롬비아의 국내 소비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커피로 공급되는 반면, 국내 생산량은 다른 국가로 수출한다.

미국은 여전히 콜롬비아 커피의 주수입국으로 MY 2011년에는 콜롬비아 수출의 43.5%를 수입하였다. 미국에 이어 일본(14%)과 벨기에(8.3%)가 콜롬비아 커피의 주수입국이다. 미국으로 수출한 콜롬비아 커피는 MY 2011/12년의 첫 5개월 동안 3.4% 증가를 보였다.

콜롬비아는 커피에 가치를 추가하고 이러한 커피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현재 콜롬비아의 총 수출 중 32%를 차지한다. 콜롬비아의 스페셜티 커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인증된 유기농 커피와 오리진 커피는 기존 커피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콜롬

비아 커피 재배자들은 USDA Orgainc, UTZ Certified, 4C, Rainforest Alliance와 같은 공정 무역 및 유기농 인증을 제공하는 많은 국제 프로그램 하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후일라(Huila) 및 나리뇨(Narino) 등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오리진의 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콜롬비아 스페셜티 커피는 국제 커피 대회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2.2.4. 정책

콜롬비아 커피 농장은 55만 3,000개에 달하는데, 이중 95%는 5헥타르 미만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5헥타르 미만의 소농들이 생산하는 커피는 총 생산량의 69%를 차지한다.

표 5 콜롬비아 수급 동향

단위: 천 ha, 백만그루, 천자루(60kg)

구분	2010/11		2011/12		2012/13	
	USDA	New Post	USDA	New Post	USDA	New Post
재배면적	780	780	780	780		780
수확면적	640	640	640	640		640
결실수	2,900	2,900	2,900	2,900		2,900
미결실수	1,070	1,070	1,070	1,070		1,070
총 커피나무 수	3,970	3,970	3,970	3,970		3,970
연초재고	284	284	99	749		439
아라비카생산량	8,525	8,525	8,500	8,500		9,000
로부스타생산량	0	0	0	0		0
기타생산량	0	0	0	0		0
총 생산량	8,525	8,525	8,500	8,500		9,000
생두 수입량	715	715	800	800		760
원두커피수입량	40	40	40	40		40
인스턴트커피수입량	0	0	0	0		0
총수입량	755	755	840	840		800
총공급량	9,564	9,564	9,439	10,089		10,239
생두수출량	7,410	6,711	7,500	7,500		7,900
원두커피수출량	50	55	50	55		55
인스턴트커피수출량	935	849	900	895		895
총수출량	8,395	7,615	8,450	8,450		8,850
원두커피소비량	770	900	650	900		900
인스턴트커피소비량	300	300	300	300		300
국내 소비량	1,070	1,200	950	1,200		1,200
연말재고	99	749	39	439		189
총 유통량	9,564	9,564	9,439	10,089		10,239

주 : 시장연도 기준(전년 10월-차년 9월까지).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그만큼 콜롬비아의 커피산업이 고용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커피산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정책을 수정하고 기후관련 지원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의 커피 프로그램은 장·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웠다. 단기적으로는 커피 녹병을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녹병에 내성을 지닌 커피 품종을 이용하여 생산량을 예전 수준인 150만 자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장기 정책의 목표는 RIC(Rural Funding Incentive) 혜택의 사용을 더 확대하여, 녹병 예방에 더 많이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그 예로, RIC 혜택의 자격기준이 규모면에서는 1.5헥타르에서부터 5헥타르에 이르는 큰 커피 농장까지 확대되었으며, 커피나무 개량과도 연관되어 있다. 소농과 관련된 또 다른 변화는 1헥타르보다 작은 규모의 농장에 대한 보조 대책으로써, 대출 뿐 아니라 투입재에 대한 할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홍수 및 과도한 강우량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커피 녹병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10헥타르보다 작은 규모의 커피 농장에 대해 커피 녹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5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씨앗, 자루, 비료, 이식과 같은 농사법 개선에 대한 공급을 제공할 것이다. 실질적인 개선 없이 회복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료와 살진균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극심한 폭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콜롬비아 정부는 폭우의 영향을 받은 모든 지역과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커피 재배자들은 비료, 살충제, 살진균제 등의 방법으로 헥타르당 150 달러의 보조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 정부의 보조정책들로는 최저 가격제와 구매 보장 프로그램 등이 있다.

3. 아시아 커피 산업 동향

3.1. 베트남

3.1.1. 생산

커피 재배 지역을 50만 헥타르로 유지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피 가격의 상승은 베트남의 커피 재배 지역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 커피 재배 지역은 2007년 50만 9,000 헥타르에서 2011년에는 57만 1,000 헥타르로 증가하여, 지난 5년

간 약 12% 증가하였다. 총 재배 면적 중 아라비카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7% 정도이다.

그림 2 베트남 커피 재배지역 및 생산량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베트남 재배자들과 상인들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시작된 2011/12년 수확연도의 좋은 기후(2012년 2월과 3월 동안 조기에 비가 내림)로 재배자들은 커피나무의 개화시기 동안 부담해야하는 관개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MY 2011/12년의 생산은 2,100만 자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 해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할 것이다. 이는 베트남의 주된 커피 생산 지역에서의 좋은 날씨와 커피나무가 새롭게 이식된 생산 지역에서 어린 나무들이 추가적으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커피 재배자들은 아라비카종의 생산량을 약 80만 자루로 예상하고 있으며, 생산은 주로 럽동(Lam Dong), 선라(Son La), 콕트리(Quang Tri)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재배지역의 확대와 수확량 증가로 인해 최근 아라비카종의 생산이 증가해왔지만, 베트남 커피 생산량에서 아라비카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4%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도 5%를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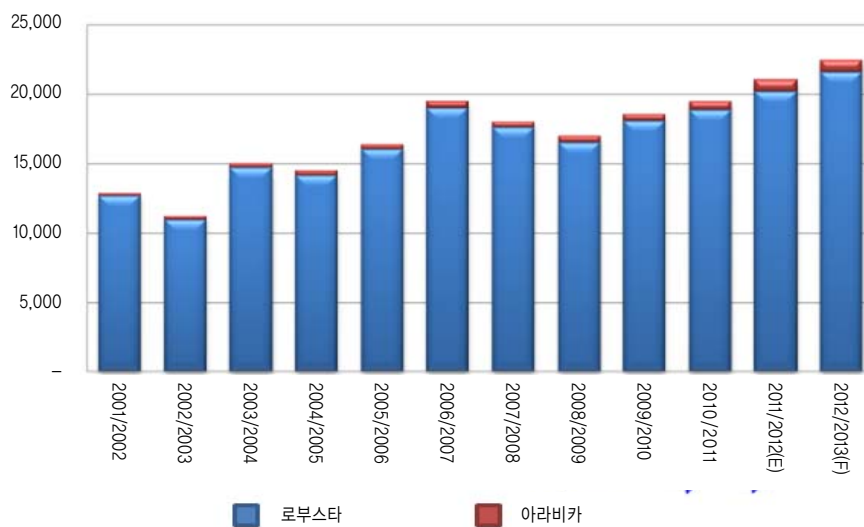
MY 2012/13년의 커피 생산은 2,245만 자루로 예측되며, 이는 MY 2011/12년과 비교했을 때 7% 증가한 것이다. 최근의 좋은 기상상황과 커피 시장 가격은 농부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커피 재배자들은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개시설을 정비하고 적절한 시비법을 향상시켜왔다.

수출업자들과 현지 커피 전문가들은 오래되고 낮은 수확량을 가진 커피나무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베트남 커피·카카오 협회(Vietnam Coffee & Cocoa Association, Vicofa)는 약 13만 7,000 헥타르에 달하는 오래된 저급의 커피 나무들이 앞으로 5년 내에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3 베트남 커피 생산량

단위: 천 자루(60kg)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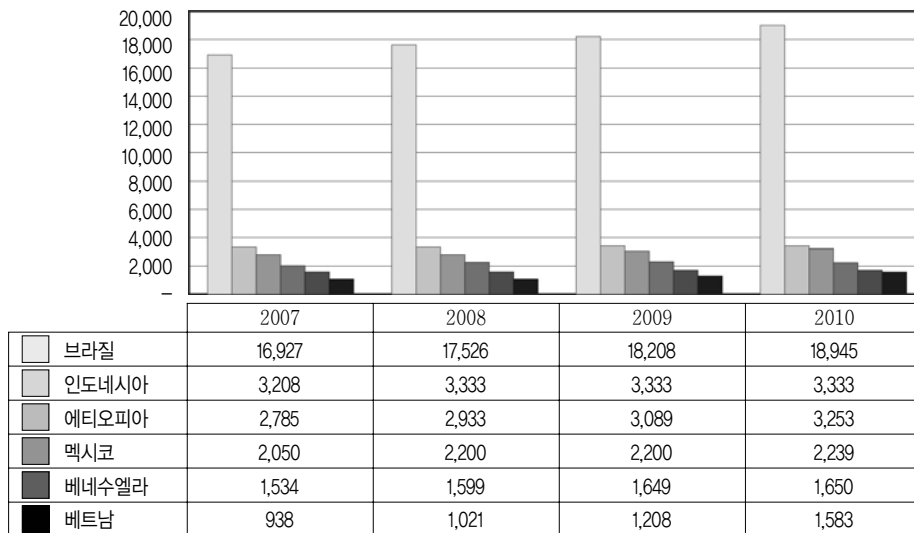
이러한 나무들은 전체 생산 지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의 커피 가격과 농가의 수입 증가가 오래된 나무가 있는 지역을 교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아직 베트남에서 오래된 나무 지역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교체기간 동안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15%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좋은 날씨 상황, 향상된 투입재, 더 나은 관개시설과 시비법, 그리고 더 생산성이 높아진 커피 지역은 생산량을 22~25%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오래된 나무를 교체하는 동안 발생하는 감소세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며, MY 2012/13년에는 총 생산량이 약 7%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베트남 커피 부문은 지속가능한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 생산 부문 전체

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커피 부문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모델을 선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이 커피 생산자, 농부, 그리고 상인들 내에서 증가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UTZ Certified, 4C Association, Rainforest Alliance와 같은 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Nedcoffee Vietnam Company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모든 프로그램에 의한 총 인증된 커피 생산은 2011년에 11만 5,000 MT에 달하였고,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림 4 수출국별 커피 소비량

단위: 천 자루(60kg)



주 : calender year 기준임.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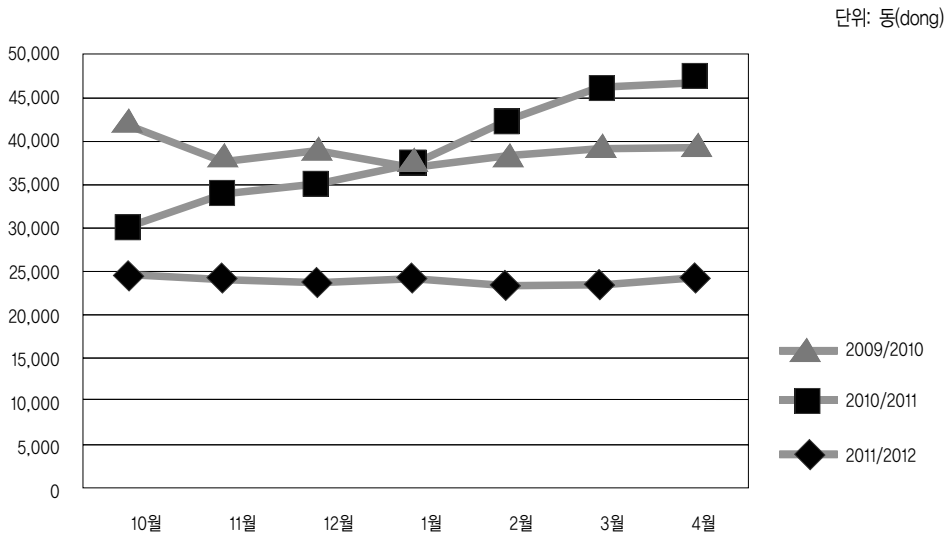
3.1.2. 소비

현지 커피 생산자들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의 커피 소비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베트남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약 1인당 1.15kg정도여서 브라질(5.8kg), 온두라스(3.6kg), 캐나다(5.9kg), 미국(4kg)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MY 2011/12년 베트남의 커피 소비는 167만 자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생산의 8% 정도에 달할 것이다.

베트남 국내 판매자들은 로스팅 된 커피, 분쇄된 커피, 인스턴트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을 할인점,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커피체인점들이 전국에서 개장하고 있는데 유명한 카페들로는 Trung Nguyen Cafe, Highlands Coffee, Lee's Coffee, Gloria Jean's 등이 있다. 다수의 북카페와 인터넷카페 또한 교외지역과 대도시에서 개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들은 젊은 세대와 사업가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있다. 도시 및 지방 모두에서 젊은 소비자들은 집 밖에서 커피를 소비하는 고객층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의 커피 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 평균 인구 증가율이 약 1%로 유지되는 것 또한 국내 커피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MY 2012/13년의 국내 소비량은 183만 자루로 약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베트남 국내 커피 소비량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효한 시장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5 닥락지역 로부스타 평균 가격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3.1.3. 가격

MY 2011/12년 첫 7개월 동안 베트남 닥락(Dak Lak) 지역의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로부스타종의 국내 평균 가격은 kg당 3만 9,242동(1.88달러)으로 이 전해 동기간 대비 거

의 같은 수준이나, 수출 가격은 3%가량 하락하였다.

비록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로부스타종의 가격이 최근 4만 2,100동(2.02달러)을 기록하여 작년 이 시기의 5만 동(2.40달러)보다는 하락하였지만, 올해 수확연도의 첫 6개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이루었다. 현지 상인들에 따르면, 이러한 국내 가격은 베트남 커피 재배자들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이나 창고에 커피를 저장하고 간격을 두고서 커피를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커피 재배자들은 올해 MY의 하반기 동안 더 높은 가격으로 커피를 팔 수 있기를 바란다.

MY 2011/12년 첫 7개월간 베트남 로부스타종의 평균 수출 가격은 \$1,918/MT(FOB Ho Chi Min basis)으로 이 전해 동기간(\$1,981/MT) 대비 3% 감소하였다. 2012년 4월의 수출 가격은 2011년 4월에 비해 15% 하락하였고, 2012년 5월 24일에는 \$2,150/MT(FOB Ho Chi Min basis)을 기록하여 MY 1994/95년의 2,658달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3.1.4. 교역

세관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MY 2011/12년의 첫 6개월(10월에서 3월)동안 1,185만 자루(711 TMT)를 수출하여 MY 2010/11의 동기간 대비 18% 증가하였다. MY 2011/12년 첫 6개월 동안의 수출액은 세계 커피 가격의 상승 덕분에 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이 전해 동기간 대비 27% 증가하였다.

MY 2011/12년 첫 6개월 동안, 베트남은 78개국에 수출을 했다. 상위 14개 국가가 베트남 커피 수출의 71%를 차지하였으며, 독일이 베트남 커피의 최대 수입국으로, 그 뒤를 미국이 따랐다. 인도네시아, 일본, 알제리, 멕시코, 영국, 필리핀으로의 수출이 이 전해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남은 MY 2011/12년 첫 7개월 동안 904 TMT의 커피(생두, 로스팅 된 커피, 인스턴트커피 모두 포함)를 수출하였고 이는 19억 달러에 달한다. 이 전해 동기간 대비 수출량 측면에서는 3% 감소한 것이지만 수출액 측면에서는 2% 증가한 것이다.

Vicofa는 베트남이 아세안 및 중국과 같은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스턴트커피와 같은 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트남은 생두, 로스팅 된 커피, 인스턴트 커피 등을 계속해서 소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Vicofa, 세관, GTA(Global Trade Atlas)의 무역 자료에 따르면, MY 2011/12년 상반기의 총 생두 수입량은 94,500 자루에 달해 이 전해 동기간 대비 24% 감소하였다. 주로

태국, 라오스,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였고, 총 수입액은 1,400만 달러에 달했다.

표 6 베트남 생두 수출량

단위: TMT, 천 \$

구분	2009/2010		2010/2011		2011/12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독일	81	116,008	74	151,440	113	231,383
미국	74	116,455	97	208,803	95	227,977
이탈리아	34	47,265	57	109,283	45	92,276
스페인	34	46,077	42	81,150	37	75,479
인도네시아	19	25,725	4	7,954	34	66,846
일본	25	38,935	22	51,133	33	75,277
벨기에	25	34,428	74	143,267	25	52,221
알제리	12	16,899	13	24,643	21	40,602
멕시코	5	6,728	7	12,280	18	35,101
영국	19	24,640	15	30,955	18	35,054
스위스	18	23,245	15	30,475	17	32,824
러시아	15	19,620	14	25,925	17	34,271
필리핀	9	11,198	8	15,468	17	33,005
한국	15	20,977	18	32,699	15	30,697
기타국가	130	177,201	141	268,708	206	450,987
총 수출량	515	725,401	601	1,194,184	711	1,514,000

주 : 전년 10월-차년 3월까지임.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MY 2011/12년 첫 6개월 동안 베트남은 소량의 로스팅 된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를 수입하였다. 로스팅 된 커피는 주로 이탈리아와 태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수입액은 21만 6,000 달러에 미쳐 이전해 동기간 대비 40% 감소하였다. 인스턴트커피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였고, 수입액은 1,600만 달러에 달해 이전해 동기간 대비 60% 증가하였다.

3.1.5. 정책

올해 초, 베트남 국무총리는 2030년까지의 비전과 함께 2020년까지의 농업 생산 부문에서의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계획에서, 2020년까지 계획된 목표

는 약 50만 헥타르에 달하는 할당된 지역인데, 이 중 아라비카종이 자라는 지역은 6만 헥타르이며 주로 센트럴 하이랜드(Central Highlands), 동남부 해안 및 중북부 해안 지역이 해당된다. 커피 가공 부문에 있어서 산업수준의 커피 가공에 대한 목표는 2010년에는 생산량의 20% 성장, 2015년에는 40%, 2020년에는 70%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수준의 커피 가공에서의 이러한 증가세는 기업과 농부들 사이에서의 경제적 협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획은 가계 수준에서 커피를 처리하는 비율을 2015년에는 80%에서 60%까지, 2020년에는 30% 수준까지 줄이고, 수세식 가공의 비율을 2010년 10% 수준에서 2015년에는 20%, 2020년에는 30%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로스팅, 분쇄, 인스턴트커피의 가공규모 및 능력을 2010년의 1만 MT에서 2015년에는 2만 MT, 2020년에는 3만 MT까지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2. 인도네시아

3.2.1.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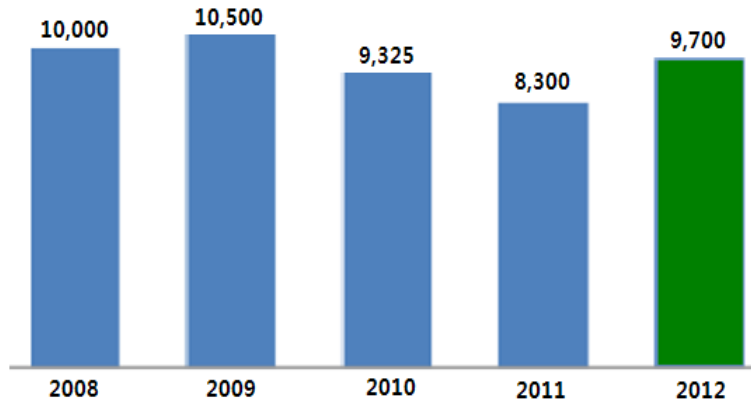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500~2,000mm의 강우량이 적절한 수준인데, MY 2010/11년 동안은 강우량이 많아, 인도네시아 농부들의 커피를 수확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조 가공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MY 2010/11년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량은 933만 자루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MY 2010/11년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강우량은 커피나무의 개화 및 체리가 익어가는 과정을 방해하여, MY 2011/12년에는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량이 더욱 감소하여 830만 자루에 달했다.

MY 2012/13년 생산량은 970만 자루로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MY 2009/10년 생산량은 1,050만 자루였고, 이는 MY 2008/09년 개화시기 및 체리가 익어가는 시기 내내 좋은 기상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MY 2011/12년의 날씨를 MY 2008/09년과 유사하여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량이 MY 2009/10년의 수준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커피 재배 지역의 감소와 정체되어 있는 생산성은 MY 2012/13년 생산량을 970만 자루로 회복시키는데 방해요소가 될지도 모른다.

로부스타종을 재배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최근 몇 년간 아라비카종을 재배하는 지역은 증가해 왔지만, 이러한 증가세가 로부스타종 재배지역의 감소를 상쇄시키지는 못했다. 인도네시아 로부스타종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람퐁(Lampung), 벵쿨루(Bengkulu), 남부 수마트라(South Sumatra) 지역을 포함한 수마트라의

그림 6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량

단위: 천 자루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2012.

남쪽 지역 농부들은 로부스타 커피 농장을 코코아, 고무, 기름야자 등과 같은 수익성이 더 높은 작물로 대체해가고 있다. 비록 매력적인 가격으로 인해 아라비카종 생산을 확장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거친 지형과 산림보호 지역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가 확장 속도를 늦추고 있다.

3.2.2. 소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발표된 커피 소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이나, 수출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커피 소비는 400만 자루에 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는 달리, 몇몇 인도네시아의 주된 커피 가공업자들은 국내 소비량을 290만 자루로 보고 있어 더 적게 잡고 있다.

원두커피를 옥수수와 섞는 것은 인도네시아 시골지역과 작은 도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관습인데, 이는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이러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두만을 원료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수수와 섞은 커피는 적당한 가격에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 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혹은 중간규모의 가공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옥수수 가격이 커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옥수수 맛이 느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맛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소규모 가공업자들에 있어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다. 원두커피와 섞여지는 옥수수의 비율을 고려해보면, 인도네

시아 커피 소비량은 MY 2011/12년 178만 자루에서 MY 2012/13년 204만 자루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3.2.3. 교역

지난 MY 동안 증가한 생산량은 수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를 일으켰다. MY 2011/12년 수출은 725만 자루에서 MY 2012/13년에는 810만 자루로, 11.7% 증가할 것이다. 커피 생산의 증가는 또한 수입을 MY 2011/12년 73만 5,000 자루에서 MY 2012/13년에는 50만 자루로 낮추게 하였다.

3.2.4. 정책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는 인도네시아 커피나무의 약 60% 이상이 25년생 이상이며, 아라비카종의 확대와 로부스타종의 개간을 위해 약 1,430억 루피아(약 1,5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 하였다.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의 개발을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이 7개의 프로젝트로 세분화 된다:

- 아라피카종 재배 지역 확장 및 로부스타종 재배지 개발을 위한 씨앗 공급: 373억 루피아
- 동부 누사텡가라(East Nusa Tenggara)와 파푸아(Papua) 지역에서의 아라비카종 지역 확장 및 로부스타종 재배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비료: 27억 루피아
- 서 자바(West Java), 중앙 자바(Central Java), 서부 누사텡가라(West Nusa Tenggara), 욕야카르타(Yogyakarta), 발리 지역에서 아라비카종 지역 확장 및 로부스타종 재배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비료 공급: 59억 루피아
- 아체(Aceh), 남부 수마트라, 벵쿨루, 잠비, 람퐁 지역에서 아라비카종 지역 확장 및 로부스타종 재배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비료 공급: 75억 루피아
- 아체, 북부 수마트라, 람퐁 지역에서의 스페셜티 커피 강화 프로그램: 334억 루피아
- 자바, 발리 지역에서의 스페셜티 커피 강화 프로그램: 298억 루피아
- 동부 누사텡가라, 남부 술라웨시 지역에서의 스페셜티 커피 강화 프로그램: 262억 루피아

참고문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Coffe Annual Brazil. 2012.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Coffe Annual Columbia. 2012.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Coffe Annual Vietnam. 2012.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Coffe Annual Indonesia. 2012.

참고사이트

- 국제커피협회(www.ico.org)
FAO. FAOSTAT(www.fao.org)
미국농무부(USDA)(www.fas.usda.gov)]